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논리철학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 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전 첫문단 독해라고 말하겠습니다.

첫문단은 앞으로 글이 어떤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어떤 화제를 다루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 알수 있는것은,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논란들을 정리할 것이고 이는 언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다음문단부터는 언어에 대한 분석과 비판과 명료화 해나가는 과정들이 제시될것임을 암묵적으로 밝히는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문단부터는 언어가 무엇이기에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이가? 를 말해 줄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읽어나가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글은 대단히 짜임새가 탄탄한 글이라는 것과 각각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과 사건이 대응하는것 처럼, 언어가 세계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것, 이것이 이글 전체의 주제임이 첫 번째 문단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단순히 언어가 세계에 대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문장에서 계속 논지를 전개해 나가며 최종적으로는, 언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다음부터는 3번째 문단까지 한 호흡에 읽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 이 글을 접할 때 한 호흡에 읽어 나갔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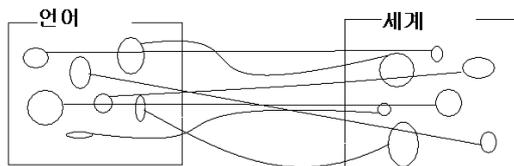
글을 읽는데는 호흡이 필요한데, 중간중간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 지문이었던 소리그늘이 대표적 사례죠.), 다시 말하자면, 평가원에서 제시되는 지문들은, 중간에 생략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론을 해나가면서 읽어야 되는 글이 있는 반면, 한번 시작을 잡으면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까지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한호흡에 읽을수 있는 글은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며, 대부분의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글의 최종도착점이 명시되어있어 중간의 논지의 근거들만 잘 잡아 준다면, 부드럽게 읽을수 있습니다.

(덧,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묻는다면, 바로 위에도 나왔듯이 중간에 추론과정이 나올 경우 사고를 해나가며 읽어야 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쪽 읽어 나가면 됩니다. 실제 문제풀 때 어떤 사고가 적절한지는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명제는 언어의 구성요소 이고 사태는 세계의 구성요소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응이 된다면 그들의 합집합인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죠



이 다음문장에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즉,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대응되는 이유는 이 구조들은 같기 때문이라는거고 이런 관계를 논리적 구조가 같다 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문장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왜 ‘그림이론’ 이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평가원, 특히 수능지문의 특징은, 일반적인 고3의 상식이 아닌 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친절하게도 말이죠. 이것만 제대로 써도, 평가원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훨씬 더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들죠, 언어와 세계가 논리적 구조가 같다는게 왜 철학적 문제가 해결될까 ? 라고 말이죠. 이걸 다시 생각하면, 필자는 언어와 세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철학적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위에서 말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라도,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일이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 되는 명제도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죠.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 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위에 말의 단순한 부연 설명입니다. 혹시나, 위에 있는 말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을 까봐, 한 번더 설명해준것입니다.

.한번더 이야기 하자면, 이글은 탄탄하고, 읽기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해주는 문장이 글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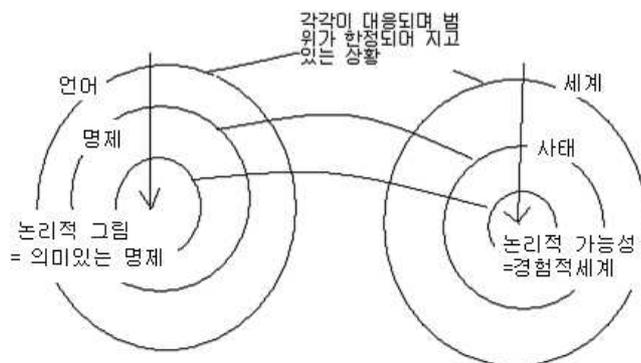
어떤 명제가 ‘의미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 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있는 것이 된다.

.마지막 으로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정리이며, 계속 의문을 품어오던 왜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가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줄까 라는것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즉, 명제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것만이 의미있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경험적 세계가 아닌 비 경험적인 명제들이 될것입니다. 이 것이 첫문단에서 언급했던 철학적 논란이 있는 것들이 되는것일거고, 다음 문단에 구체화 되어서 나타날 것 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읽었으면 분명하게 느껴야 될게 있습니다. 시작에 언어와 세계에서 시작해서 관점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한 호흡에 읽는다면, 이런식으로 느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관점의 독해력이 된다면, 평가원이 밑에있는것처럼 말하는 것을 느낄겁니다.

A(언어)는 B(세계)에 대응되는데, A(언어)는 a(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B(세계)는 b(사태)로 이루어져 있단말이야. 역시나 a(명제)도 b(사태)에 대응되겠지? 그럼 A와 B의 구조는 비슷할거야. 그럼 비트겐슈타인이 왜 그림이론이라고 부르는지는 알겠지?

그리고 오해할까봐 덧붙이는 건데 a(명제)에 대응되는 것은 b(사태) 중에서

b'(사실)이 아니라 b“(논리적가능성)이야. 그럼 a(명제)도 a'(사실적그림)이 아니라 a“(논리적그림)이겠지? 이걸 한번더 말하자면 b(사태)가 이렇게 나뉘어 질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참, 안 일어나면 거짓) 이렇게 나뉘어야만 명제가 된다는거야.

이건 헛갈릴수 있으니깐 마지막에 다시 말해 줄게.

그러면 내가 말하려는게 드러 나잖아? 혹시나 싶어서 한번더 말해 주자면 a“(논리적그림)은 이러이러한것(의미있는명제)인거고, b“(논리적가능성)은 이러이러한거(경험적세계)란 말이야. 그래야지만 참, 거짓을 따질수가 있잖아. 아까 내가 왜 명제가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야 된다고 얘기 했는지 이해 되지?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마지막문단에 나올 내용에 강력한 근거가 되거든.

(넌 모르겠지만 이 비트겐슈타인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 철학수업을 들으면 지루한 명제들의 관계들만 죽어라고 계속 다룬다고, 제일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현대 철학의 흐름을 바꾼 사람의 논리에 대한 근거니깐 확실히 알아둬)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깐, 니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한번 해볼게.

19.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
| ㉠. 언어:세계 ㉡. 명제:사태 ㉢. 논리적 그림:의미 있는 명제 ㉣. 형이상학적 주체:경험적 세계 |
|--|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 ⑤ ㉡, ㉢, ㉣ | |

이런식으로 이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했다면

이문제를 보고, “이런건 당연히 문제에 나와야지, 지문에서 가장중요한건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논리적 그림 : 논리적 가능성, 큰 의미있는 명제 : 경험적세계 로 쉽게 바꾸고 금방 넘어 갈수 있습니다.

이정도에 오면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평가원식 글의 특징과, 문제 출제경향을요. 물론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번 소리그늘에서 한 가지 출제경향, 추론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와서 흐름이 끊긴다면, 이는 문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걸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2011 경제 채권 지문도 추론요구한 문제로서, 소리그늘의 두 번째 문제와 유사한 경향을 띠니다.

소리그늘의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가 난이도 상 이라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률 베스트중에 하나죠. 이쯤 되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이 왜 시험장에서 이문제를 못풀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럼 다음 문단입니다.

앞에 나왔던 근거(언어는 참거짓을 따질수 있는 것만 다루야 한다)는 것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다음 글들은 수월하게 읽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주체, 윤리적가치 등과 관련된논의가 의미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 없이 드러나는 신비한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서 이문단은, 주제에 대해서 근거를 착실히 드러냈기에, 깔끔하게 읽힙니다.

이 까지 읽었다면, 독해력이 어느정도 되거나 사고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이런 의문을 느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참거짓을 따질수 없는것은 말하면 안된다는데 이글은 참거짓을 따질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20.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자연스러워 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가원은 제시문의 완결함을 추구한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9월의 진리란 무엇인가? 란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있는 부족함을 문제를 통해서 보완했습니다.

이런 제시문에 나와있는 부족함을 느끼고, 문제시 나올 것이란것을 안다면, 언어 비문학 영역에서 요구하는 독해력과,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둘다 최상위급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자면, 이글이 부족함을 지니는 이유는, 이 글이 나타내는 내용, 즉, 언어와 세계와의 추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 다른 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됩니다.

(만약, 다른 선지가 왜 틀린지 이해가 되지않는다면, 글을 다시 읽고, 이글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해서 총 2개 지문동안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을 세가지, 봤습니다.

1.한단계 더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2. 글에서 가장핵심적인부분. 3. 글을 보완하는 문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제시문을 독해하면서 이리이러한것들이 문제시 될수 있겠다 라는 것을 캐치하면 그순간 집중해야합니다.

마지막글에서 다물, 실천적인 독해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모든 지문을 이런식으로 독해하다간, 망합니다.

완벽하게 풀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제시한 것은 말그대로 분석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문제풀이에 녹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지문만 이런식으로 보라고 했던거구요.

즉, 이렇게 한두지문씩 분석한 결과 얻어진 문제 출제 경향들을 가지고, 제시문을 읽어야 합니다. 제시문을 읽다가 그순간이 오면 최대한 집중해서 사고해야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사실 위에서 나는 1,2,3, 도 크게 의미가 없죠. 독해력 하나만 강하면 저런 모든 테크닉은 “평가원이 문제화 하는 것은 글에서 중요한부분들이다”라는걸로 귀결되니깐요.

어쩔수 없죠. 저같은 양민들은 독해력이 떨어지니 이렇게라도 매꿔 넣어야죠 ㅠ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분석하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EBS의 허구성입니다.

2012년 수능문제를 지금 고3인, 즉,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풀라고 하면, 이 지문 보다는 소그리틀 지문에서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EBS읽었던 것이 이지문에서 오히려 해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지문에서 정답률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제시문을 읽는데 핵심은 첫문단에서 전체 줄기를 잡고 2번째 문단에서 부터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따라서 부드럽게 마지막문단까지 읽어나가도 별 지장이 없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EBS지문과 가장 유사했던 문단인 2번째 문단에서 ‘이건 아는내용이니깐 빨리 독해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읽었다면 3번째 문단 독해가 안됩니다.
3번째 문단은 2번째 문단부터 인과관계를 잘 잡고 내려온다면, 깔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3번째 문단에서 독해가 안되면 위의 저 두문제는 절대, 못 맞습니다.

이렇게 배경지식으로만 풀려고 했던학생, 즉, 2번째 문단을 대충읽고 넘어간 학생에게 평가원은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그리고 지문배치를 고려하면, 이게 첫지문이었으니, 니가 아무리 ebs를 많이 봤어도 그거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위험할수도 있어, 라고 주의 줬다고도 생각할수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평가원은 언어영역에서, EBS를 무력화 시킬 카드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을 쓰는것은 필연적입니다.(만점자1%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EBS는 배경지식이고 배경지식으로의 용도만 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언어영역문제를 접하는 순간 처음부터 제대로 독해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경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빨리 읽을수 있다는 것이죠.
(EBS 비트겐슈타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수능에서 비트겐슈타인지문을 제대로 읽었을 경우에 확실히 시간단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언어영역에 대한 독해력이 없으면, 배경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수능시험장에서 언어영역문제를 편순간 매순간 첩보는 지문처럼 접근해야합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면 수능에서 점수를 올릴수 있지만, EBS를 과연 점수는 못올립니다.